

전라선 권역 지자체 “KTX 증편을”

전주시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전라선 권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현행 계획대로 수서발 SRT가 개통될 경우 고속철도(KTX) 운행간격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15분과 43분으로 줄어드는 반면, 전라선은 운행간격이 현행 96분에 머물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는 오는 13일 여수시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전라선 KTX 협의체 구성과 전라선 KTX 증편 등 전라선 KTX 활성화 방안을 공동 대응기로 했다.

전라선 선로에는 연간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해, 여수

전주시 등 7개 시군, 여수시청서 실무자 회의 가져

세계박람회장(오봉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남원춘양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구례자연드림파크, 광양광양제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와의 연계가 밀집돼 있다.

특히 전라선 권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전라선 이용 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지만 노선 증편은 전무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KTX를 이용해 전주역에 도착한 이용객 수는 지난 2013년 23만7264명에서 2014년 31만 483명, 지난해 43만 9539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내년 5월에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7 FIFA U-

20월드컵'의 개막식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4강전 등 다양한 경기가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국내·외 축구팬들이 KTX를 이용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KTX 이용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전주역을 통과하는 KTX의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는 하루 10편에 불과해 경부선 74편과 호남선 24편보다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개통을 눈앞에 둔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경부선 34편과 호남선 18편만 배정되고, 전라선은 사업 대상이 아닌 관계로 단 한 편도 반영되지 않아 전라선 KTX이용객들의 불

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 등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전라선 증편과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등 전라선 KTX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전라선 KTX 증편 등 전라선 KTX 활성화 방안 공청회의 문을 작성해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방문해 전라선 KTX 증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전북도와 정동영 의원·정운천 의원·김광수 의원 등 지역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왔다.

/김영재 기자

박근호 고려병원장,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전달

박근호 전주고려병원장이 11일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쾌척했다.

박 원장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재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인재양성이 곧 지역발전의 경쟁력이다’는 신념으로 지난 2008년부터 장학기금을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다. 박 원장이 전주시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한 장학기금은 6000만원에 달한다.

윤여용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는 박근호 고려병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인재양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장학사업을 통해 애학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고장 전주를 빛낼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지원사업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준법지원센터, 메가박스 송천점서

호성동 어르신 초청 무료 영화관람 행사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1일 호성동 거주 독거노인 40명을 메가박스 송천점으로 초청해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위한 전주준법지원센터의 주민 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메가박스 송천점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게 됐고, 지난 3월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에게 무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최 소장은 “준법지원센터는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주민친화 사업,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법교육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소의 새로운 이름으로, 전주준법지원센터가 위치한 호성동 주민을 위한 장학금 지원, 꽃밭길 조성, 솔로몬로파크 견학 프로그램 등 주민친화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제20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1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경로효친을 실천한 효행자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 19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올해 100세 맞은 오동이 어르신께 장수지팡이 수여

제20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1일 조봉업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어르신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 전주시 6개 노인복지관, 전주시 3개 시니어클럽이 함께 주관한 이날 행사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노인강령 낭독, 청려지팡이 수여식,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봉업 부시장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대신해 올해 100세를 맞이한 오동이 어르신께 명이주 줄기로 제작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지팡이를 선물했다. 또, 그간 부모님과 이웃어르신들에게 경로효친을 실천한 효행자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 19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주시의 장 표창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표창 등 효행자와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오경남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노인이 병들어 자리에 누우면 가정과 국가도 경제적 손실이 크고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노인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날로 사라져가는 효(孝)의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우리들의 참된 공경의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대학교수, 여조교 성추행 물의

군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여조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1일 여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의 한 대학교수 A씨(56)를 불집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쯤 군산시내 한 노래방에서 이 대학교 조교인 B씨(31·여)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입 맞춤을 하기는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다.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근 기자

변태짓 일삼은 40대 가장 실형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 골목이나 계단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뒤따라 추행하고 변태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3시15분 쯤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 인근에서 귀가하는 A(28·여)씨를 뒤따라가 남여뜨린 후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전주시, 체납세 99억원 징수

목표액 110.1% 달성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99억원(지방세 70.7억원, 세외수입 28.3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90억원의 110.1%를 달성(지방세 112.3%, 세외수입 104.8%)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9만 9162명(61만 650건)의 납부 최고서를 일제 발송하고,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 331명(2575건, 79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심층 분석을 실시해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 압

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체납 자동차세의 경우 전직일 번호판 일제영치 및 주간 상시영치를 통해 149대 1억3200만원을 징수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54건 6억1400만원을 징수했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2016년 출납폐쇄기한에 체납세 일소율 목표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국립순창자연휴양림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